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기능어의 어휘구조 대조연구*

송경안

(전남대학교)

Song, Kyung-An. (2015). A Contrastive Study on the Structure of Functional Words in German, English and French.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3(1), 107-137.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structure of functional words in German, English and French. Historically the English language has mainly been influenced by the German and French languages. We might say that the English vocabulary is composed of two strata, a thin base layer of Germanic covered with a thick Romanic upper stratum. The functional words are a part of the basic vocabulary and so English functional words are expected to be basically of Germanic origin, which is proved statistically in this paper. All the pronominal words, wh-words, article words and modal auxiliaries in English are of Germanic origin. The deictic and connective words of English are also basically of Germanic origin. However, the situation of prepositions is slightly different. While the locative prepositions, which might be considered to be some of the most basic ones, are, like the other functional words mentioned, Germanic in their origin. The other prepositions are of mixed origins. They are partly Germanic and partly Romanic. In morphological structure the German functional words show the most conservative character; they are mainly simple structure words of Germanic origin which have been grammaticalized through the language's long history. In contrast the French functional words frequently have a complex structure which developed from Latin in relatively recent times. English now shows a mixed nature of the other two languages; it basically retains the conservative character of the Germanic language, but it has also many complex functional words which seem to have developed more recently.

주제어(Key Words): 기능어(functional word), 어휘구조(word structure), 전치사(preposition), 접속사(conjunction), 대명사(pronoun), 직시어(deixis), 지시사(determiner), 양상조동사(modal auxiliary)

* 이 논문은 2013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 이 논문은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유익한 의견을 통해 수정·보완되었으며 아직 남은 결점들은 연구자의 몫이다. 심사위원들께 감사한다.

1. 머리말

학습자의 이전 학습경험이 나중 학습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제2외국어 교육의 경우 학습자들은 모국어이외에 제1외국어라는 언어학습 경험을 더 가지고 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제2외국어 학습에서 학습자에게 주는 영향이 모국어보다는 제1외국어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Neuner, 1996; Butzkamm 2002; Günther & Günther, 2007; Neuner et al., 2009 참조). 본 연구는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의 기능어를 대조분석하여 세 언어 어휘구조의 이해 및 어휘교육에 기여하려고 하는바 제1외국어와 제2외국어의 현상을 비교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제2외국어 중에서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함께 비교하려는 것은 이 세 언어의 역사적 상황 때문이다. 즉 영어는 역사적으로 이 두 언어와 얽혀 있어서(Baugh & Cable, 2002, chap. 5 참조)¹⁾ 영어의 현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과의 동시적 비교가 필요한 것이다.

언어간 어휘의 대조는 주로 의미나 용법의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홍재성, 2003; 이익환·이민행, 2005; 최병진, 2010 참조). 어휘구조의 측면에서는 최규일(2002)가 한·독 합성명사의 구조를 비교하였고, 김인균(2004)는 한·영 명사형성 접미사를 대조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모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작업들이지만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의 어휘구조를 대조하려는 본 연구는 국내의 외국어교육 및 연구 상황에서 또 다른 의미를 지닐 것이다. 필자 등은 이미 이 세 언어의 동사구조를 비교·분석한 바 있고(송경안·김순임, 2000 참조)²⁾, 김순임(작성 중)은 또 하나의 어휘적 범주인 명사의 어휘구조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기능어를 그 분석대상으로 한다.³⁾

2. 분석대상의 범위 및 분석방법

본 연구가 분석대상으로 하는 기능어란 기능성 혹은 문법성이 강한 어류(word class)들을 말한다. 즉 우리는 낱말들을 어휘적 범주와 기능적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명사, 동사, 형용사가 전자에 속하고 대명사, 전치사, 접속사 등이 후자에 속한다(Baker, 2003; Schachter, 1985/2007; Sasse, 1993 참조).⁴⁾ 부사는 그 경계에 있는 어류이며 형용사에서

1) 이와 관련해서 영어 어휘의 기원에 대한 연구로는 McKnight (1923), Scheler (1977), Shipley (1984), Hughes (2000) 등이 있다.

2) 전체적으로 영어와 프랑스어가 매우 유사했으며 독일어의 기본동사 구조는 영어와 유사했다.

3) 본격적인 역사·비교언어학적 분석은 필자의 능력 밖에 있으며 본 연구는 외국어교육의 입장에서 간단한 유럽 사전의 자료와 어원사전을 바탕으로 세 언어의 어휘적 관련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다.

4) 독일어 문법에서는 명사와 동사를 주품사(Hauptwortarten)라고도 한다(Erben, 1980, p. 177 참조).

파생된 부사까지를 고려한다면 이 역시 어휘적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Bisang, 2011a 참조). 여기서 어류란 언어학적으로 혹은 유형론적으로 유의미한 낱말군을 말한다. 이 경우 관사나 계사(copula), 조동사도 별도의 어류로 볼 수 있다(Sasse, 1993, p 667f 참조).

문법화의 관점에서 볼 때 언어는 문법소와 어휘소로 구성되며 문법화 및 기능성의 정도에 따라 어류를 (1)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이성하, 1998, p. 137, 187; Kuryłowicz, 1975, p. 52; Heine, 2003 참조). 이는 어휘적 및 기능적 범주의 구분과 같은 것이며 그 차이가 점진적이라는 점을 명시화 한 것이다.

(1) 명사, 동사 > 형용사, 부사 > 전치사, 접속사, 조동사, 대명사, 지시사

기능어는 (1)에서 세 번째 단계에 속하는 어류들이며 본 연구는 **전치사**, 접속사, 대명사, 지시어, 의문사, 시간·공간 직시어, 조동사를 분석의 대상으로 할 것이다.⁵⁾ 이를 위해 우리는 이들 범주별로 분석대상 어휘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세 언어에서 대응표현을 찾아야 한다. 본고는 세 언어 가운데 필자의 전공분야인 독일어의 기능어 목록을 먼저 확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다른 두 언어의 표현을 결정할 것이다.⁶⁾ 이때 범주에 따라 대상 어휘목록이 분명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분석대상을 적절한 선에서 제한해야 한다. 이밖에 하나의 독일어 어휘에 다른 언어에서 여러 가지 표현이 대응될 수 있기 때문에 대응표현을 결정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Goursau & Goursau (1991)의 유럽어 사전을 기초자료로 할 것이다. 이 사전에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등 유럽 6개 국어의 기초어휘 7,826개가 예문 없이 한 표제어에 각각 한 단어씩 병렬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사전에 중요한 기능어가 누락된 일이 있는데 이들은 별도로 추가해서 분석할 것이다. 이때 세 언어 대응표현들은 Orbis 출판사의 어휘사전 Orbis (1988), Orbis (1992)를 참고할 것이다.

세 언어 기능어의 목록이 확정되면 어휘구조 비교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첫째, 어원 사전을 기초로 영어 기능어의 기원을 조사하고 이들이 게르만어적인지 로만스어적인지를 파악한다. 둘째, 프랑스어 기능어의 어원을 조사하여 그 구조를 파악한다. 셋째, 독일어 기능어의 구조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그 어원을 조사하여 구조를 확인한다. 넷째, 세 언어 기능어의 기원과 구조를 바탕으로 관계성에 대한 해석을 시도한다. 이로써 우리는 세 언어 기능어의 영향 관계, 특히 독일어 및 불어와 관련한 영어 기능어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국내 외국어교육에 기여하고자 한다.

5) 독일어 기능 어류에 대한 자세한 분류는 Hoffmann (ed.) (2007) 참조.

6) 익명의 심사자께서는 영어 기능어의 목록을 먼저 확정하고 이에 따라 독일어와 프랑스어의 대응표현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으나 이는 독일어 전공자인 본 연구자에게 무리한 일이라고 사료된다.

3. 범주별 분석

본 장은 위에서 논의한 범주별로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기능어를 대조분석하고자 한다. 범주에 따라 분석대상이 분명하게 한정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 분석대상을 우선 적절한 범위에서 확정해야 할 것이다.

3.1. 전치사

전치사는 대표적인 기능어로서 보통 폐쇄범주로 간주된다(Sasse, 1993, p. 680ff; Schachter, 2007, p. 35 참조). 그러나 독일어의 경우 전치사가 개방범주의 성격을 갖는다는 견해가 있다. 예를 들면 Duden (2009: 600)은 독일어 전치사의 개방범주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 책은 독일어 전치사를 형태에 따라 1~3차 전치사로 나누고 있는데,⁷⁾ 2차~3차 전치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그 수가 50-100개에 이르는 개방범주로 본다.⁸⁾

Helbig & Buscha (1996, p. 402f)도 독일어의 전치사를 1차 전치사와 2차 전치사로 나누고 1차 전치사는 비교적 폐쇄적인 어류이며 2차 전치사가 그 범위를 확장한다고 본다. 독일어 전치사를 개방범주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속격지배 전치사이다 (Duden, 2009, p. 612; Helbig & Buscha, 1996, p. 403).

이와 같은 독일어 전치사의 특징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을 확정하기가 간단하지 않았다. 우선 본 연구가 기본 자료로 삼고 있는 Goursau & Goursau(1991)은 다음 (2)와 같이 32개의 전치사가 수록되어 있다.

(2) Goursau & Goursau(1991)의 독일어 전치사 목록

여격/대격 전치사: an, auf, hinter, in, neben, über, unter, vor

속격 전치사: anstatt, dank, trotz, während

여격 전치사: aus, außer, bei, gemäß, mit, nach, nahe bei, seit, von, zu

대격 전치사: bis, durch, entlang, für, gegen, ohne, per, um, wider

(2)의 속격 전치사에는 1차 전치사라고 할 수 있는 *wegen*이 빠져 있고 2차 전치사라고 보아야 할 *dank*가 포함되어 있다(Duden, 2009, p. 601 참조). 여격 전치사에는 2차 전치사라 할 *gemäß*가 포함되어 있고 1차 전치사라고 할 수 있는 *entgegen*, *gegenüber*가 빠져 있

7) 1차 전치사는 완전히 문법화된 것으로 전치사로만 쓰이는 것들이다. 2차, 3차 전치사는 파생 전치사들이며 3차 전치사는 2개 이상의 어휘로 구성된 것들이다.

8) Schröder(1986)은 독일어 전치사를 200개 이상으로 추정하고 Forstreuter & Egerer-Möslein(1980, p. 9)은 적어도 118개라고 한다.

다(Duden, 1966, p. 317; Schulz & Griesbach, 1960, p. 226; Helbig & Buscha, 1984, p. 166 참조). 여격 전치사에 포함된 *nahe bei*는 영어의 *near*의 독일어 번역 표현을 수록한 것이다. 이 목록에는 또 순수한 독일어 전치사가 아니고, 또 대표적인 대격 전치사라고 보기도 어려운 *per*가 포함되어 있다.⁹⁾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서 본 연구는 Goursau & Goursau(1991)의 전치사 목록은 보완하여 (3)과 같이 36개의 독일어 전치사를 분석대상 목록으로 삼았다.

(3) 분석대상 독일어 전치사 목록 36개

여격/대격 전치사: an, auf, hinter, in, neben, über, unter, vor, zwischen

속격 전치사: dank, statt,¹⁰⁾ trotz, während, wegen

여격 전치사: aus, außer, bei, entgegen, gegenüber, gemäß, mit, nach, nahe bei, seit, von, zu

대격 전치사: bis, durch, entlang, für, gegen, ohne, per, um, wider

Ruoff(1990)의 독일어 빈도사전은 고빈도 전치사 45개를 나열하고 있는데 (3)의 전치사들은 대부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들이 독일어의 대표적인 전치사들이라는 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겠다.¹¹⁾ 한편 Ruoff(1990)의 통계에 따르면 상위 빈도 10개의 전치사가 총 사용 회수의 88,8%를 차지한다(Duden, 2009, p. 600 참조).

3.1.1. 독일어 여격/대격 전치사와 영어, 프랑스어 전치사

여격/대격 전치사들은 장소를 나타내는 것들로 가장 기본적인 전치사라고 할 수 있다. 독일어 여격/대격 전치사에 대해 Goursau & Goursau(1991)에 수록된 영어, 프랑스어 대응표현을 보면 (4)와 같다. 이 표에서 우리는 세 언어 사이에서 두 가지 특징을 관찰할 수 있다. 첫째는 영어의 전치사에 게르만어적인 요소가 지배적이라는 점이고, 둘째는 독일어 전치사의 구조가 가장 간단하다는 점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영어에는 게르만어적인 요소와 로만스어적인 요소가 섞여 있는데 독일어 여격/대격 전치사에 대응하는 영어 전치사에는 게르만어적인 색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4)에서 독일어 여격/대격 전치사에 대응하는 영어 전치사 표현은 22개이며¹²⁾ 이들의

9) Schulz & Griesbach(1960, p. 225), Schröder(1986, p. 244)는 *per*를 대격 전치사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0) 전치사 *anstatt* 대신 *statt*를 목록에 포함시켰다. 그 이유는 문법화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문법화가 더 많이 진행된 것이며 따라서 기능어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Kurylowicz, 1975; Greenberg, 1991).

11) (3)에서 고빈도 45위에 포함되지 않는 전치사는 다음과 같다: *dank, entgegen, gemäß, nahe bei, per, wider*.

어원을 정리하면 (5)와 같다.¹³⁾ 이 22개 영어 전치사는 대부분(95%) 독일어와 어원이 같으며 2차 전치사라고 할 *in front of*에서 *front*만 로만스어 기원으로 확인되고 있다((6) 참조). *following*도 2차 전치사로 보아야 하는데 그 기원은 현대 독일어 *folgen*과 같은 것이다.

(4) 독일어 여격/대격 전치사와 영어 프랑스어 대응표현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an	at, by, on, near	à, sur, près de
auf	on, upon	sur
hinter	following, behind	suite(à la), derrière
in	in, into	en, à, dans
neben	next to, beside	à côté
über	on, upon, above, over	sur, au-dessus dessus(au-,par-)
unter	among, below, beneath, under, underneath	sous, au-dessous dessous, parmi
vor	ago, before, in front of	il y a, avant, devant
zwischen	between	entre

(5) 독일어 여격/대격 전치사에 대응하는 영어 전치사의 어원¹⁴⁾

above	a ('an/on') + b('by') + obe('ufan', cf. NHG <i>oben</i>)
ago	OE <i>agān</i> OHG <i>irgān</i> , cf. NHG <i>ergehen</i>
among	a ('an/on') + mong('mengan', cf. NHG <i>Menge</i>)
at	OE <i>æt</i> OHG <i>az</i> , Goth <i>at</i>
before	be('by') + fore(OE <i>fore</i> , cf. NHG <i>vor</i>)
behind	be('by') + hind(OHG 'hintar')
below	be('by') + low(ME <i>lah</i> , MHG <i>læge</i>)
beneath	be('by') + neath(OE <i>niðan</i> , NHG <i>nieder</i>)
beside	be('by') + side('side', NHG <i>Seite</i>)
between	be('by') + tween('two', NHG <i>zwei</i>)

12) 이 사전에는 원래 한 표제어에 각각 한 단어씩 대응표현을 수록하고 있는데 의미가 여러 가지일 경우 별개의 표제어로 수록하고 있어서 세 언어의 표제어 수가 다르게 나타난다.

13) 본고га 세 언어 전치사의 어원을 조사하기 위해 참고한 어원사전은 다음과 같다: Kluge(1899/1989), Körting(1908), Dauzat et al(1992), Hoad(1986).

14) 본고에 나타난 언어에 대한 약어는 다음과 같다: OE = Old English, ME = Middle English, OHG = Old High German, MHG = Middle High German, NHG = New High German, Goth = Gothic, OF = Old French.

by	OE <i>bī</i> , OHG <i>bī</i> , cf. NHG <i>bei</i>
following	follow (OE <i>folgian</i> , NHG <i>folgen</i>) + <i>ing</i>
in front of	in + front(OE <i>front</i>) + <i>of</i>
in	OE <i>in</i> , OHG <i>in</i>
into	in + to(OE <i>tō</i> , OHG <i>zuo</i> , NHG <i>zu</i>)
near	OE <i>nēar</i> OHG <i>nāhor</i> , NHG <i>nah</i>
next to	next(OE <i>nēsta</i> , OHG <i>nāhisto</i>) + to(OE <i>tō</i> , OHG <i>zuo</i> , NHG <i>zu</i>)
on	OE <i>on</i> , OHG <i>an</i> , <i>ana</i> , NHG <i>an</i>
over	OE <i>ofer</i> , OHG <i>ubar</i>
under	OE <i>under</i> , OHG <i>untar</i> , NHG <i>unter</i>
underneath	under(OE <i>under</i> , NHG <i>unter</i>) + neath(OE <i>niðan</i> , NHG <i>nieder</i>)
upon	up(OE <i>up</i> , OHG <i>ūf</i> , NHG <i>auf</i>) + on(OE <i>on</i> , NHG <i>an</i>)

(6) 독일어 여격/대격 전치사에 대응하는 영어 전치사의 기원별 분류¹⁵⁾

게르만어 기원: above, ago, among, at, before, behind, below, beneath, beside, between, by, following, in, into, near, next to, on, over, under, underneath, upon (21개; 95.4%)

로만스어 기원: in front of (1개; 4.6%)

독일어 여격/대격 전치사에 대응하는 프랑스어의 전치사는 고유한 로만스어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이들 전치사는 대부분 라틴어에서 기원한 것들이다(김순, 2004, p. 17; Körting, 1908; Dauzat et al, 1992 참조). *il y a*는 원래 영어의 *there is/are* ~ 구문에 해당하는 숙어로서 영어로 직역하면 *it there has* ~가 되는데 시간적으로 '이전'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Orbis, 1988 참조). *dessus/dessous*는 *de + sous*의 결합형인데 *au-dessous*는 여기에 다시 전치사 *au*가 결합한 것이다.

한편 영어나 프랑스어에 비해 독일어의 여격/대격 전치사들은 구조가 간단하다. 즉 독일어의 경우 모두 단일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두 언어는 그렇지 않다. 영어와 프랑스어의 장소 전치사를 구조에 따라 분류하면 (7-8)과 같다.¹⁶⁾ 이 두 언어의 경우 단순구조 전치사가 전체의 1/3정도이고 나머지 2/3는 복합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7) 영어의 22개 장소 전치사의 구조

15) 고대영어(OE) 기원은 게르만어 기원으로 본다.

16) 단일어휘일지라도 어원적으로 복합 어휘에서 온 것은 복합구조로 계산하겠다. 프랑스어 복합구조에 포함된 단일어휘의 기원을 보면 다음과 같다: *avant* (< *ab + vante*, 'from before'), *dans* (< *de + intus*, 'of inside'), *derrière* (< *de + retro*, 'of back'), *dessous* (< *de + subtus*, 'of bottom'), *devant* (< *de + avant*, 'of before'), *parmi* (< *par + mi*, 'per medium').

단순구조: at, by, in, near, on, over, under (7개; 31.8%)

복합구조: above, ago, among, before, behind below, beneath, between, following, in front of, into, next to, underneath, upon (15개; 68.2%)

(8) 프랑스어 18개 장소 전치사의 구조

단순구조: à, en, entre, sous, suite, sur (6개; 33.3%)

복합구조: à côté, à la suite, au-dessous/dessus, avant, dans, derrière, dessous/dessus, devant, il y a, par-dessus, parmi, près de(12개; 66.6%)

3.1.2. 독일어 여격 전치사와 영어, 프랑스어 전치사

독일어 여격 전치사는 대개 출처와 목표지점을 가리킨다. 이는 여격과 탈격의 의미가 융합된 격이라고 볼 수 있다. (3)의 독일어 여격 전치사에 대해 Goursau & Goursau(1991)에 수록된 영어, 프랑스어 대응표현을 보면 (9)와 같다.

(9) 독일어 여격 전치사와 영어 프랑스어 대응표현¹⁷⁾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aus	from	de
außer	out of, except	hors de, excepté, sauf
bei	close to, at, next to ¹⁸⁾	auprès de, chez
entgegen	contrary to, opposite to, against	au-devant de, contraire à, à l'opposé de
gegenüber	opposite to, across from	vis-à-vis de, en face de
gemäß	according to	selon
mit	with	avec
nach	to, towards, after; afterwards	vers, après, à
nahe bei	close, near	proximité (à)
seit	since, for	depuis
von	of	de
zu	to, at, by, for	à, en, pour, chez

(9)의 영어 전치사 표현을 따로 정리하면 (10)과 같다. 이 가운데 *at, by, for, near, next*

17) *entgegen, gegenüber*는 Goursau & Goursau(1991)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 프랑스어, 영어 대응표현은 Orbis(1988), Orbis (1992)를 참고한 것이다.

18) Goursau & Goursau(1991)에는 *to*로 수록되어 있으나 이는 *next to* 오타로 짐작된다.

to는 (5)에서 이미 게르만 어원임을 확인하였고, 이밖에 어휘들의 기원을 보면 (11)과 같다.

- (10) according to, across from, after, afterwards, against, at, by, close (to),
 contrary to, except, for, from, near, next to, of, opposite to, out of, since,
 to, towards, with

- (11) 독일어 여격 전치사에 대응하는 영어 전치사의 어원

at, by, for, near, next to	게르만어 기원((5) 참조)
according to	accord (OF <i>acorder</i>) + ing + to(see (5))
across from	across (OF <i>en croiz</i>) + from (OE, OHG <i>fram</i>)
after	OE <i>after</i> ; OHG <i>aftar</i>
against	again(OE <i>agēn</i> ; OHG <i>ingagan</i>) + -st
close to	close (OF <i>clos</i>) + to (see (5))
contrary to	contrary (OF <i>contraire</i>) + to(see (5))
except	OF <i>excepté</i>
from	OE <i>fram</i> ; OHG <i>fram</i>
of	OE <i>of</i> ; OHG <i>aba</i> ; cf. NHG <i>ab</i>
opposite to	opposite(OF <i>opposer</i>) + to(see (5))
out of	out(OE <i>ūt</i> ; OHG <i>ūz</i>) + of(OE <i>of</i> ; OHG <i>aba</i>)
since	OE <i>siðan</i> ; cf. NHG <i>seit</i> ; <i>seitdem</i>
towards	to(see (5)) + wards(OE <i>weardes</i> ; OHG <i>wartes</i>)
with	OE <i>wið</i> ; OHG <i>widar</i>

이를 바탕으로 (9)의 영어 전치사 표현을 기원에 따라 분류하면 (12)와 같으며, 이 통계는 (6)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후자의 경우 95%가 게르만어 기원인데 비해 (12)의 경우 게르만어 기원이 63.2%에 그치고 있다. 이는 영어의 역사와 관련한 영어 어휘의 구조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게르만어에서 출발해서 로만스어가 덧씌워진 영어의 어휘는 기저에는 아직 게르만적인 어휘가 깔려 있고 그 위를 로만스어 기원의 어휘가 아주 두껍게 덮고 있는 상황이다(Hughes, 2000: 11 참조). 기저 어휘는 구체적이고 기초적인 어휘인데 반해 상층부의 어휘는 추상적이며 파생 어휘가 많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여격/대격 전치사는 장소와 관련된 것들로 의미가 구체적이다. 반면에 여격 전치사는 의미가 이보다는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12)에서 로만스어 기원의 전치사들은 상대적으로 더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이들은 형태적으로 복합 전치사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문법화의 관점에서 볼 때 전치사성, 즉 문법소적 성격이 약하다는 뜻이다(Heine, et al., 1991, 2.4., 6.4.; Heine, 2003, p. 594ff 참조).

(12) 독일어 여격 전치사에 대응하는 영어 전치사의 기원별 분류

게르만어 기원: at, by, for, near, next to, after, from, of, out of, since, towards, with (12개; 63.2%)

로만스어 기원: according to, across from, against, close to, contrary to, except, opposite to (7개; 36.8%)

(9)의 프랑스어 표현들은 물론 라틴어에서 기원한 것들이다(김순, 2004, p. 7; Körting, 1908; Dauzat et al, 1992 참조). 기원까지를 고려하여 (9)에 나타난 세 언어 전치사들의 구조를 통계적으로 보면 (13-15)와 같다.

(13) 독일어 여격 전치사의 구조

단순구조: aus, außer, bei, gemäß, mit, nach, seit, von, zu (9개; 75%)

복합구조: entgegen, gegenüber, nahe bei (3개; 25%)

(14) 독일어 여격 전치사의 영어 대응표현 구조

단순구조: after, against, at, by, except, for, from, near, of, since, to, with (12개; 60%)

복합구조: according to, across from, close to, contrary to, next to, opposite to, out of, towards (8개; 40%)

(15) 독일어 여격 전치사의 프랑스어 대응표현 구조

단순구조: à, chez, de, en, excepté, pour, sauf, vers (8개; 42%)

복합구조: après, avec, depuis, hors de, auprès de, au-devant de, à l'opposé de, selon, vis-à-vis de, en face de, proximité à (11개; 58%)¹⁹⁾

독일어 여격/대격 전치사 및 (7-8)과 비교했을 때 (13-15)의 통계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세 언어에서 모두 복합구조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구체적 의미를 갖는 장소 전치사가 더 기본어휘에 가깝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본어휘에 가까울수록 단일어가 많고 여기에서 멀어질수록 복합표현 혹은 파생표현이 많은 것이다(Heine, et al., 1991, 2.4., 6.4.; Heine, 2003, p. 594ff 참조).

한편 세 언어를 비교하면 장소 전치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어가 단순구조가 많고 다른

19) 복합구조에 포함된 단어의 라틴어 기원을 보면 다음과 같다: après (< ad pressum, 'at near'), avec (< apud hoc 'at here'), depuis (< de postius, 'of after'), selon (< sub longum, 'under length')(김순, 2004, p. 7; Körting, 1908; Dauzat et al, 1992 참조).

두 언어는 복합구조가 많다. 이 역시 변화를 많이 겪지 않은 게르만어와 변화를 많이 겪은 로만스어 그리고 두 가지 계통의 혼합으로 형성된 영어의 역사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Pisani, 1966 참조). 독일어의 경우 이른 시기부터 전치사로 쓰이던 어휘들, 즉 기초어휘들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프랑스어의 경우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일반 어휘들로부터 문법화된 전치사 표현들이 형성되었고 그 결과 복합전치사들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영어의 경우 이러한 프랑스어의 영향을 받으면서 복합구조 전치사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14)를 조금 자세히 보면 단순구조 전치사는 대부분 게르만어 기원이고 복합구조 전치사는 로만스어 기원이 많다. 문법화가 많이 진행된 기초어휘들은 게르만어에서 기원한 것들이고 문법화가 덜 진행된 것들은 프랑스어에서 왔다는 뜻이 된다. 단순구조 전치사의 비율을 보면 독일어(75%) - 영어(60%) - 프랑스어(42%) 순으로 영어가 게르만어와 로만스어 사이에 끼여 있다.

3.1.3. 독일어 대격 전치사와 영어, 프랑스어 전치사

(3)의 독일어 대격 전치사에 대해 Goursau & Goursau(1991)에 수록된 영어, 프랑스어 대응표현을 보면 (16)과 같다. (16)의 영어 전치사는 13개이며 이들의 어원을 정리하면 (17)과 같다. 이 가운데 6개는 이미 위 (5), (11)에서 기술한 것이다. (17)의 영어 전치사를 기원별로 분류하면 (18)과 같다. (18)의 통계는 (6)과 많은 차이가 있으며 (12)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로만스어 기원의 전치사가 영어에 상당히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다.

(16) 독일어 대격 전치사와 영어 프랑스어 대응표현

bis	until, till	jusqu'à
durch	by, through, across	par, travers (à)
entlang	along	long (le)
für	for	pour
gegen	against, towards, to	contre, vers
ohne	without	sans
per	per	par
um	around	autour
wider	against	contre

(17) 독일어 대격 전치사에 대응하는 영어 전치사의 어원

across	across (OF <i>en croiz</i>); cf. (11)
against	again(OE <i>agēn</i>) + -st; cf. (11)
along	OE <i>andlang</i> cf. NHG <i>entlang</i>

around	OF <i>a la reonde</i>
by	OE <i>bī</i> , OHG <i>bī</i> , cf. NHG <i>bei</i> ; cf. (5)
for	OE <i>fore</i> , OHG <i>fora</i> , cf. NHG <i>vor</i>
per	OF <i>per</i>
through	OE <i>þurh</i> , OHG <i>duruh</i>
till	OE <i>til</i> , OHG <i>zil</i> cf. NHG <i>Ziel</i> (‘goal’)
to	OE <i>tō</i> , OHG <i>zuo</i> , NHG <i>zu</i> ; cf. (5)
towards	to + wards(OE <i>weardes</i>); cf. (11)
until	un(OE <i>und</i>) + til(OE <i>til</i> , OHG <i>zil</i>)
without	with(OE <i>wið</i>) + out(OE <i>ūt</i>); cf. (11)

(18) 독일어 대격 전치사에 대응하는 영어 전치사의 기원별 분류

게르만어 기원: against, along, by, for, through, till, to, towards, until, without (10개; 76.9%)

로만스어 기원: across, around, per (3개; 23.1%)

(16)의 프랑스어 전치사들도 역시 라틴어에서 기원한 것들이며(김 순, 2004, p. 7; Körting, 1908; Dauzat et al, 1992 참조), 기원까지를 고려하여 (16)의 세 언어 전치사들의 구조를 통계적으로 보면 (19-21)과 같다. 여기에서도 역시 독일어는 단순구조가 대부분이며 영어와 프랑스어는 복합구조 전치사가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이 통계는 앞의 다른 전치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에 대한 해석 역시 앞에서 논의한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20)의 영어의 전치사를 보면 게르만어 기원 복합구조에 로만스어 기원 복합구조가 겹쳐서 (14)와 약간 차이가 있으며 (15), (21)의 프랑스어 통계도 약간 차이가 있다.

(19) 독일어 대격 전치사의 구조

단순구조: bis, durch, für, gegen, ohne, per, um, wider (8개; 88.9%)

복합구조: entlang (1개; 11.1%)

(20) 독일어 대격 전치사의 영어 대응표현 구조

단순구조: against, by, for, per, through, till, to (7개; 53.8%)

복합구조: across, along, around, towards, until, without (6개; 46.2%)

(21) 독일어 여격 전치사의 프랑스어 대응표현 구조

단순구조: contre, par, pour, sans, vers (5개; 55.6%)

복합구조: autour, jusqu'à, long (le), travers (à) (4개; 44.4%)²⁰⁾

3.1.4. 독일어 속격 전치사와 영어, 프랑스어 전치사

독일어 속격 전치사에 대해 Goursau & Goursau(1991)에 수록된 영어, 프랑스어 대응 표현을 보면 (22)와 같다.²¹⁾ 여기에서도 역시 영어의 전치사에 게르만어적인 요소와 로만스어적인 요소가 섞여 있으며, 구조적으로 볼 때도 독일어는 단일어 기원으로 1차 전치사적 성격이 강한 데 비해 영어와 프랑스어의 대응표현은 복합구조가 대부분이다. 위 영어 전치사 표현 가운데 (*de*)*spite*, *during*은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것이고 *thanks*, (*in*)*stead*, *for*는 독일어에서 유래한 것이다. *because*는 *be* + *cause*의 결합형태인데 *be*는 독일어 전치사 *bei*(‘by’)와 같은 어원이고 *cause*는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것이다.

(22) 독일어 속격 전치사와 영어 프랑스어 대응표현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dank	thanks to	grâce à
trotz	despite, in spite of	malgré
statt	instead of	au lieu de
während	during, for	durant, pendant
wegen	because of	à cause de

구조적으로 보면 영어의 전치사에는 대부분 *to*, *of*가 덧붙어서 복합 전치사적인 성격을 띠고 프랑스어도 비슷한 상황인데 반해 독일어의 대응표현은 단일어로 형성된 1차 전치사의 형식이다. 이러한 차이는 속격 표지가 아직 굴절형태로 남아 있는 독일어의 구조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영어와 프랑스어에서 속격 굴절형태는 각각 전치사 *of*, *de*로 대체되었는데 독일어에는 아직 속격 굴절형태가 남아 있기 때문에 (22)에서 *of*, *de*와 같은 추가적인 전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독일어의 굴절어적인 성격은 속격 전치사를 매우 생산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는 결과적으로 독일어 전치사를 개방범주에 가깝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Duden, 2009, p. 612; Helbig & Buscha, 1996, p. 403).

3.2. 접속사

접속은 크게 등위접속과 종속접속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다시 연결, 이접, 역접으로 구분되며 후자는 보문절, 관계절, 부사절로 구분된다(Schachter, 1985/2007, p. 45ff). 이와 같은

20) *autour*는 라틴어 *au* + *tour*(‘at around’)의 복합구조이고 *jusqu’*à는 *jusque* + à(‘till to’)의 복합구조이다(김순, 2004, p. 11; Körting, 1908; Dauzat et al, 1992 참조).

21) 전치사 *wegen*은 Goursau & Goursau(1991)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 프랑스어 대응표현은 Orbis(1988)를 참고한 것이다. 전치사 *trotz*의 영어 대응표현에 *in spite of*는 이것이 더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되어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Orbis, 1992 참조).

형식적인 구분에도 불구하고 개별언어에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접속사로 인정할 것인가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독일어의 경우 예를 들면 Duden (2009, p. 621ff)는 등위 접속사를 27개, 종속접속사를 67개로 분류하고 Buscha(1995, p. 16f)는 등위접속사를 19개, 종속접속사를 60개로 분류하고 있다. Helbig & Buscha(1996, p. 445f)는 등위접속사를 12개, 종속접속사를 22개로만 분류한다. 이 책에 포함된 34개의 접속사는 아주 기초적이고 엄선된 독일어 접속사라고 할 수 있는데, 특이하게도 Ruoff(1990)의 독일어 빈도사전의 고빈도 접속사들과는 거리가 멀다. 즉 이 빈도사전은 47개의 고빈도 접속사를 제시하고 있는데 Helbig & Buscha(1996)의 기본 접속사 34개 가운데 12개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불일치는 두 저서에서 접속사의 개념을 다르게 사용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Ruoff(1990)은 접속부사들을 이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Helbig & Buscha (1996, p. 445)은 이들을 제외시키고 있다.

이들 가운데 Helbig & Buscha(1996)의 목록이 독일어의 대표적인 접속사 목록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3개 언어의 대조분석을 위해 Goursau & Goursau(1991)의 유럽어 사전을 기초자료로 하고 여기에 Helbig & Buscha(1996)에 포함된 중요한 기초 접속사들을 추가하면 본 연구의 분석대상 전치사는 (23)과 같다.²²⁾

(23) 분석대상 전치사 목록

(a) 등위접속사 10개²³⁾

aber	but	mais
allein	but	mais
beziehungsweise	or	respectivement
denn	because, for	car
doch	however, though	mais
entweder ~ oder	either ~ or	ou bien ~ ou bien
oder	or	ou
sondern	but	mais
und	and	et
weder ~ noch	neither ~ nor	ni

22) Helbig & Buscha(1996)에서 추가한 목록은 다음과 같다: *allein, als ob, bevor, dass, doch, ehe, entweder ~ oder, falls, indem, so dass, sondern*. 이들에 대한 영어, 프랑스어 대응표현은 Orbis (1988), Orbis (1992)를 참고한 것이다.

23) 등위접속사의 지위는 독일어 문법 기준이다. 독일어의 등위접속사가 다른 언어에서는 종속접속사나 접속부사로 나타날 수 있다.

(b) 종속접속사 19개

als ob	as if	comme si
als	when, as	lorsque
bevor	before	avant que
bis	as far as	jusqu'à
da	since	puisque
damit	so that	afin que
dass	that	que
ehe	before	avant que
falls	if, in case	si
indem	while	pendant que
ob	whether	si
obgleich	although, though	quoique
obwohl	though, although	bien que
so dass	so that	de façon que
sobald	as soon as	dès (que)
während	while, whilst	pendant/tandis que
weil	because, for	parce que, car
wenn	if, whether	si
wie	as, like	comme

위 접속사들을 우리는 전치사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먼저 독일어 등위접속사에 대응하는 영어 표현의 기원을 보면 (24)와 같으며 이를 통계적으로 보면 (25)와 같다. 즉 10개의 영어 접속표현 가운데 9개가(90%) 게르만어 기원이며 *because*만 부분적으로 로만스적 요소를 담고 있다.

(24) 독일어 등위접속사에 대응하는 영어 접속표현의 어원

and	OE <i>and</i> OHG <i>anti</i>
because	be (= <i>by</i> ; OE <i>bī</i> , OHG <i>bī</i>) + cause(OE <i>causa</i>)
but	OE <i>būtan</i> , OHG <i>biūzan</i>
either	OE <i>ǣgðer</i> , OHG <i>eogihwedar</i>
for	OE <i>fora</i> , OHG <i>fore</i>
however	how(OE <i>hū</i> , OHG <i>wuo</i>) + ever(OE <i>ǣfre</i>) ²⁴
neither	n('not') + either(OE <i>ǣgðer</i> , OHG <i>eogihwedar</i>)
nor	contracted form of OE <i>nōðer</i> ('neither')
or	OE <i>oððe</i> OHG <i>ode</i> (cf. NHG <i>oder</i>)
though	OE <i>þeah</i> OHG <i>doh</i> (cf. NHG <i>doch</i>)

(25) 독일어 등위접속사에 대응하는 영어 접속표현의 기원별 분류

게르만어 기원: and, but, either, for, however, neither, nor, or, though(9개; 90%)

로만스어 기원: because (1개; 10%; 일부 로만스어 기원)

기원까지를 고려하여 (23a)에 나타난 세 언어 접속사들의 구조를 통계적으로 보면 (26-28)과 같다. 등위접속 표현의 구조에서도 독일어가 가장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고 영어는 시기적으로 나중에 발달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복합구조 표현이 많다. 프랑스어도 크게 보면 라틴어 등위접속사들의 단순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26) 독일어 등위접속사의 구조

단순구조: aber, allein, denn, doch, oder, sondern, und, weder, noch(9개; 82%)

복합구조: beziehungsweise, entweder (2개; 18%)

(27) 독일어 등위접속사에 대응하는 영어 접속표현의 구조

단순구조: and, but, either, for, or, though (6개; 60%)

복합구조: because, neither, however, nor (4개; 40%)

(28) 독일어 등위접속사에 대응하는 프랑스어 접속표현의 구조

단순구조: car, et, mais, ni, ou (5개; 71%)

복합구조: respectivement, ou bien (2개; 29%)

(23b)에서 독일어 종속접속 표현에 대응하는 영어 표현은 29개이며 이들의 어원을 정리 하면 (29)와 같고 이를 통계적으로 보면 (30)과 같다. 영어의 종속접속사 표현도 역시 대부분 (89%) 게르만어 기원이며 2개(11%)는 일부 로만스어 기원이다.

(29) 독일어 종속접속사에 대응하는 영어 접속표현의 어원

although	al(OE <i>all</i> OHG <i>al</i>) + though(OE <i>þeah</i> OHG <i>doh</i>)
as	OE <i>alswā</i> cf. NHG <i>als</i>
as far as	as + far(OE <i>feor</i> OHG <i>fer</i> ; cf. NHG <i>fern</i>)
as if	as + if(OE <i>ġif</i> OHG <i>ibu</i> ; cf. NHG <i>ob</i>)
as soon as	as + soon(OE <i>sōna</i> OHG <i>sāno</i>)
because	be (= <i>by</i> ; OE <i>bī</i> , OHG <i>bī</i>) + cause(OE <i>causa</i>)

24) "a purely English formation of unknown origin" (Hoad, 1986, p. 158).

before	be (= <i>by</i> ; OE <i>bī</i> , OHG <i>bī</i>) + fore(OE <i>fora</i> , OHG <i>fore</i>)
for	OE <i>fora</i> , OHG <i>fore</i>
if	OE <i>ġif</i> OHG <i>ibu</i> ; cf. NHG <i>ob</i>
in case	in(OE <i>in</i> , OHG <i>in</i>) + case(OE <i>cas</i>)
like	OE <i>ġelīc</i>
since	OE <i>siðan</i> ; cf. NHG <i>seit</i> ; <i>seitdem</i>
so that	so(OE <i>swa</i> OHG <i>swō</i>) + that(OE <i>þæt</i> OHG <i>daz</i>)
that	OE <i>þæt</i> OHG <i>daz</i>
though	OE <i>þeah</i> OHG <i>doh</i> (cf. NHG <i>doch</i>)
when	OE <i>hwenne</i> OHG <i>wenne</i> (cf. NHG <i>wenn</i>)
whether	OE <i>hweder</i> OHG <i>hwedar</i>
while	OE <i>hwīl</i> OHG <i>hwīla</i>
whilst	while(OE <i>hwīl</i> OHG <i>hwīla</i>) + -st

(30) 독일어 종속접속사에 대응하는 영어 접속표현의 기원별 분류

게르만어 기원: although, as, as far as, as if, as soon as, before, for, if, like, since, so that, that, though, when, whether, while, whilst (17개; 89%)

로만스어 기원: because, in case (2개; 11%, 일부 로만스어 기원)²⁵⁾

기원까지를 고려하여 (23b)에 나타난 세 언어 접속사들의 구조를 통계적으로 보면 (31-33)과 같다. 종속접속 표현의 구조는 등위접속 표현의 구조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세 언어 모두 복합구조의 비율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는 등위접속 표현이 더 기초어휘에 속하기 때문일 것이다.²⁶⁾ 영어의 경우 여기에서도 게르만어적인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독일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한편 프랑스어는 복합구조가 훨씬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전치사의 구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언어의 역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프랑스어는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일반 어휘들로부터 문법화된 접속사 표현들이 많이 형성되었고 이들이 아직 복합구조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33)의 복합구조 표현에서 마지막 3개의 표현은 원래 2개의 단어였던 것을 한 단어로 쓰고 있는데(각주 25 참조), 이는 이들이 다른 복합구조 표현들보다 문법화가 더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25) *cause*, *case*만 로만스어 기원이다.

26) 예를 들면 영어의 경우 *and*, *or*, *but*을 등위접속사로 분류하는데(Greenbaum & Quirk, 1990, p. 262) 이들은 의미나 형태로 보아 가장 기초적인 접속사라고 할 수 있다.

(31) 독일어 종속접속사의 구조

단순구조: *als, bis, da, dass, ehe, falls, ob, während, weil, wenn, wie*(11개; 58%)

복합구조: *als ob, bevor, damit, indem, obgleich, obwohl, so dass, sobald*(8개; 42%)

(32) 독일어 종속접속사에 대응하는 영어 접속표현의 구조

단순구조: *as, for, if, like, since, that, though, when, whether, while, whilst*
(11개; 58%)

복합구조: *although, as far as, as if, as soon as, because, before, in case, so that* (8개; 42%)

(33) 독일어 종속접속사에 대응하는 프랑스어 접속표현의 구조

단순구조: *car, comme, dès, pendant, que, si* (6개; 32%)

복합구조: *afin que, avant que, bien que, comme si, de façon que, dès que, jusqu'à, parce que, pendant que, tandis que, lorsque, puisque, quoique*²⁷⁾ (13개; 68%)

3.3. 대명사, 관사류, 직시어, 조동사

전치사, 접속사에 이어 이 단원에서는 대명사, 관사류, 직시어, 조동사 등 그 밖의 기능어들을 분석하려고 한다. 용어의 사용에서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전통적으로 쓰는 용어들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겠다.

3.2.1. 인칭대명사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의 인칭대명사 1격의 형태를 정리하면 (34)와 같다. 이 표를 보면 세 언어 인칭대명사의 역사적 관계가 한 눈에 들어난다. 프랑스어의 인칭대명사는 물론 라틴어에서 온 것으로 게르만어와 관계가 없다(송경안, 2012 참조). 영어의 인칭대명사는 모두 게르만 어원이다(Hoad, 1986 참조). 2인칭 단수에는 원래 독일어 *du*에 해당하는 *thou*가 쓰이다가 복수 *you*로 대체되었다(임혜순, 1995). 3인칭 단수의 *he, she, it*는 각각 독일어 *er, sie, es*와 같은 어원이다(Kluge, 1899/1989; Hoad, 1986 참조). 대명사 *es - it*의 경우 독일어의 /s/와 영어의 /t/가 대응되는 예이다.²⁸⁾ 복수형에서 *wir - we, ihr - you*는 같은 어원이고 *they*는 게르만어의 직시어 *der - the, das - that* 등과 같은 어원이다.²⁹⁾

27) 맨 나중 세 가지 표현의 기원은 다음과 같다: *lorsque* (< *lors*('since') + *que*('that')), *puisque* (< *puis*('then') + *que*('that')), *quoique* (< *quoi*('what') + *que*('that')).

28) 이에 대한 다른 예로는 *that - das, what - was, water - wasser* 등이 있다.

(34)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의 인칭대명사

단수	1인칭	ich	I	je
	2인칭	du	you	tu
	3인칭	er	he	il
		sie	she	elle
		es	it	il
복수	1인칭	wir	we	nous
	2인칭	ihr	you	vous
	3인칭	sie	they	elles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의 소유대명사 형태를 정리하면 (35)와 같다.³⁰⁾ 이 표의 프랑스어 표현도 역시 인칭대명사와 마찬가지로 라틴어 기원이다 (Körting, 1908 참조). (35)에서 영어의 *your, his, its, their*의 어원은 (34)의 해당 주격형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들을 제외하면 *my, her, our*가 남는데 이들도 모두 게르만 어원이다(Hoad, 1986 참조). *my*는 OE *mīn*(*mine*)의 축약형인데 이는 표 (35)의 독일어 *mein*과 기원이 같다. 표 (35)의 *ihr - her*는 OE *hīre*, OHG *iro*에서 온 것이고, *unser - our*도 같은 어원이다.

(35)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의 소유대명사

단수	1인칭	mein	my	mon
	2인칭	dein	your	ton
	3인칭	sein	his	son
		ihr	her	son
		sein	its	son
복수	1인칭	unser	our	notre
	2인칭	euer	your	votre
	3인칭	ihr	their	leur

3.2.2. 관사류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의 기초 수량사를 포함한 관사류의 형태를 정리하면 (36)과 같다. 이 표에서 독일어와 영어의 형태를 비교하면 현재의 상태에서도 영어의 *the, this, it, that, all, both, many*(독: *manch*)는 게르만 어원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을 제외하고 영어의 나머지 표현들의 어원을 정리하면 (37)과 같다. 이렇게 보면 결국 (36)의 영어 관

29) 영어의 *they*-계열 대명사는 고대영어에는 없었다가, 중세영어 시대에 North Germanic에 속하는 Old Norse에서 차용된 것이다(익명의 심사자 제공 자료).

30) 영문법에서는 이를 인칭대명사의 소유격이라고 부르고 독일어 문법에서는 소유대명사라고 부른다.

사류 및 기초 수량사도 모두 게르만어 기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6)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의 관사류 및 기초 수량사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ein	a, an	un	ander	other	autre
der	the	la	beide	both	les deux
dies	this	ceci	einig	some, few	quelques
das	it	il	manch	some	certaines
jen	that	ce	viel	many, much	beaucoup
jed	every	chaque	kein	no, none	aucun
all	all	tous	wenig	few, little	peu
solch	such	tel			

(37) 영어 관사류 및 수량사의 기원³¹⁾

a	<i>an</i> 의 축약형
an	OE <i>ān</i> OHG <i>ein</i> cf. NHG <i>ein</i>
every	OE <i>æfric̄</i>
few	OE <i>fēawe</i> OHG <i>fao</i>
little	OE <i>lȳtel</i> OHG <i>luzzil</i>
much	OE <i>mycel</i> OHG <i>michil</i>
no	<i>none</i> 의 축약형
none	OE <i>nān</i> OHG <i>nein</i> cf. NHG <i>nein</i>
other	OE <i>ōðer</i> OHG <i>andar</i> cf. NHG <i>ander</i>
some	OE <i>sum</i> OHG <i>sum</i>
such	OE <i>swilc̄</i> OHG <i>sulih</i> cf. NHG <i>solch</i>

3.2.3. 부정대명사와 재귀사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의 부정대명사 및 재귀사의 형태를 정리하면 (38)과 같다. 부정대명사 및 재귀사는 독일어와 영어가 많이 다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표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어 표현들의 어원을 조사해 보면 모두 게르만어 기원임을 알 수 있다. 독일어, 영어 *man* - *one*에 대응하는 프랑스어 표현 *on*은 형태적으로는 영어 *one*과 유사하지만 이는 ‘사람’을 뜻하는 *homme*에서 온 것으로 기원적으로는 *one*과 관계가 없다.

31) 게르만어 기원이 분명해 보이는 *the, this, it, that, all, both, many*에 대한 어원은 생략한다.

(38)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의 부정대명사 및 재귀사

man	one	on
niemand	nobody	ne ... personne
jemand	someone	quelqu'un
nichts	nothing	rien
etwas	something	quelque chose
sich	oneself	soi
selbst	oneself	soi

(39) 영어 부정대명사 및 재귀사의 어원

one	OE <i>ān</i> OHG <i>ein</i> cf. NHG <i>ein</i>
nobody	no(OE <i>nān</i>) + body(OE <i>bodig</i>)
someone	some(OE <i>sum</i>) + one(OE <i>ān</i>)
nothing	no(OE <i>nān</i>) + thing(OE <i>þing</i> , OHG <i>ding</i>)
something	some(OE <i>sum</i>) + thing(OE <i>þing</i>)
oneself	one(OE <i>ān</i>) + self(OE <i>self</i> OHG <i>selb</i>)

한편 위에서 보았던 인칭대명사나 관사류는 구조적으로 단순구조의 양상을 띄고 있는데 부정대명사 및 재귀사는 복합구조를 띄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전자가 더 기초어휘에 속한다는 뜻이 될 것이다. 반면 후자는 의미적으로 이미 복합어적인 성격을 띄기 때문에 형태적으로도 복합구조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부정대명사 및 재귀사의 구조를 언어별로 정리하면 (40-42)와 같다.

(40) 독일어 부정대명사 및 재귀사의 구조

단순구조: man, nichts, etwas, sich, selbst (5개; 71.4%)

복합구조: jemand, niemand (2개; 28.6%)

(41) 영어 부정대명사 및 재귀사의 구조

단순구조: one (1개; 16.7%)

복합구조: nobody, someone, nothing, something, oneself(5개; 83.3%)

(42) 프랑스어 부정대명사 및 재귀사의 구조

단순구조: on, rien, soi(3개; 50%)

복합구조: ne ... personne, quelqu'un, quelque chose(3개; 50%)

여기에서도 역시 독일어는 단순구조가 많고 반대로 영어는 복합구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독일어에 게르만어 기초어휘가 많이 남아있으며, 영어의 경우 이후 문법화를 통해 새로운 어휘들로 대체되었다는 뜻이 될 것이다. 프랑스어의 경우 2개의 구조가 절반씩 차지하고 있는데 복합구조 표현들은 라틴어 해당표현과는 관계없이 나중에 문법화 된 것으로 보인다.³²⁾

3.2.4. 의문사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의문사의 형태를 정리하면 (43)과 같다. 이들 역시 현재 상태에서 얼핏 보아도 영어와 독일어가 같은 기원이라고 짐작된다. 영어 의문사 표현들의 기원을 정리하면 (44)와 같으며 예상했던 대로 모두 게르만어 기원이다.³³⁾

(43)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의 의문사

wann	when	quand
warum	why	pourquoi
was	what	quoi
welch	which	quel
wer	who	qui
wie	how	comment
wie viel	how much/many	combien
wo	where	où
wohin	where	où
woher	from where	d'où

(44) 영어 의문사의 어원

what	OE <i>hwæt</i>	OHG <i>hwaꝛ</i>	NHG <i>was</i>
when	OE <i>hwenne</i>	OHG <i>wenne</i>	NHG <i>wann</i>
where	OE <i>hwær</i>	OHG <i>hwār</i>	NHG <i>wo</i>
which	OE <i>hwilc</i>	OHG <i>hwelch</i>	NHG <i>welch</i>
who	OE <i>hwā</i>	OHG <i>hwer</i>	NHG <i>wer</i>
why	OE <i>hwȳ</i>		
how	OE <i>hū</i>	OHG <i>wuo</i>	NHG <i>wie</i>

32) 이들에 대한 라틴어 표현은 다음과 같다: *neminem*(‘nobody’), *aliquis*(‘someone’), *aliquid* (‘something’)(Google English-Latin 사전 참조).

33) *from*, *many*, *much*의 어원은 위에서 이미 게르만어 기원으로 확인한 바 있다.

구조적으로 보면 단일 의문사라고 볼 수 없는 *how many/much, from where*를 제외하면 영어의 의문사가 모두 단순구조이고 독일어와 프랑스어는 복합구조를 포함하고 있다. 즉 프랑스어는 ‘어떻게, 왜’가 복합구조로 나타나고 독일어는 ‘어디로, 왜’가 복합구조로 나타난다. 6가지 기본 의문사 가운데 ‘누구, 무엇, 어디, 언제’는 세 언어에서 모두 단순구조로 나타나고 ‘어떻게, 왜’는 복합구조로 나타나는데 이는 문법화 단계에서 구체성과 추상성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겠다. 즉 사람, 사물, 공간은 구체적이고, 시간은 이 보다는 추상적이며, 방법과 이유는 가장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추상적인 개념일수록 문법화가 늦게 일어나는 것이다 (Heine, et al., 1991, 2.4., 6.4. 참조).³⁴⁾

3.2.5. 직시어

직시어(*deixis*)는 인칭, 사물, 공간, 시간, 방법 직시어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Kameyama, 2007) 인칭, 사물 직시어는 이미 위 대명사와 관사류 편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이 소단원에서는 기본적인 공간, 시간, 방법 직시어만을 대조분석하겠다. 먼저 세 언어의 주요 시간 직시어들을 정리하면 (45)와 같으며 영어 시간 직시어들의 어원은 (46)과 같다. 영어의 시간 직시어들도 *immediately*를 제외하면 모두 게르만어 기원이다. 이는 가장 주변적인 직시어로서 중심적인 직시어들에 비해 그만큼 쉽게 다른 말로 대체될 수 있다는 뜻일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독일어 *sofort*도 복합구조라는 특징이 있다. 이 역시 주변적인 직시어라는 점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45)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의 주요 시간 직시어

heute	today	aujourd'hui
gestern	yesterday	hier
morgen	tomorrow	demain
jetzt	now	maintenant
nun	now	maintenant
dann	then	puis
damals	then	alors
bald	soon	bientôt
vorher	before	auparavant
später	later	ultérieur
sofort	immediately	immédiatement

34) 문법화가 늦게 일어났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뜻이며 따라서 더 많이 문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익명의 심사자께서 제안한 부연 설명).

세 언어의 시간 직시어를 구조면에서 분석하면 (47-49)와 같다. 이에 따르면 독일어가 역시 단순구조가 많고 영어와 프랑스어는 복합구조가 많다. 영어의 직시어들은 대부분 게르만어 기원이기는 하지만 구조면에서는 복합구조가 우세하다. 이 가운데 *today*, *yesterday*, *tomorrow*는 2개의 단어가 결합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이는 단순구조로 나타나는 독일어의 대응표현들보다 나중에 문법화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6) 영어 시간 직시어의 어원

today	to(OE <i>tō</i> , OHG <i>zuo</i>) ³⁵ + day(OE <i>dæg</i> OHG <i>tac</i> NHG <i>Tag</i>)
yesterday	yester(OE <i>ġeostran</i> OHG <i>gesterĕn</i> NHG <i>gestern</i>) + day
tomorrow	to(OE <i>tō</i> , OHG <i>zuo</i>) + morrow(OE <i>morgen</i> OHG <i>morgan</i> NHG <i>morgen</i>)
now	OE <i>nū</i> OHG <i>nū</i> NHG <i>nun</i> ³⁶)
then	OE <i>þænne</i> OHG <i>danne</i> NHG <i>dann</i>
soon	OE <i>sōna</i> OHG <i>sāno</i>
before	be('by') + fore(OE <i>fore</i> , cf. NHG <i>vor</i>)
later	'late'(OE <i>læt</i> OHG <i>laz</i>)
immediately	프랑스어 <i>immédiatement</i> 참조

(47) 독일어 시간 직시어의 구조

단순구조: *heute*, *gestern*, *morgen*, *jetzt*, *nun*, *dann*, *damals*, *bald*, *später* (9개; 81.8%)

복합구조: *vorher*, *sofort* (2개; 18.2%)

(48) 영어 시간 직시어의 구조

단순구조: *now*, *then*, *soon*, *later* (4개; 44.4%)

복합구조: *today*, *yesterday*, *tomorrow*, *before*, *immediately*(5개; 55.6%)

(49) 프랑스어 시간 직시어의 구조

단순구조: *hier*, *ultérieur*, *puis* (3개; 30%)

복합구조: *alors*, *aujourd'hui*, *auparavant*, *bientôt*, *demain*, *immédiatement*, *maintenant* (7개; 70%)³⁷)

35) 여기서 *to*는 시간적 의미로 쓰였다. 현대 영어에서는 *to*가 시간적 의미로 거의 쓰이지 않지만 현대 독일어에서는 *zu*('to')가 시간적 의미로 쓰이고 있다.

36) 현대 독일어에서 부사에 *-n*을 붙이는 일이 많다(50) 참조.

37) 프랑스어 복합구조의 기원을 보면 다음과 같다: *alors* (< à + *illā* + *hōra*, 'at that time'), *aujourd'hui* (< au + *jour d'hui*, 'at the day of today'), *demain* (< de *mane*, 'of morning'), *maintenant* (<

세 언어의 주요 공간 직시어들을 정리하면 (50)과 같으며 영어 시간 직시어들의 어원은 (51)와 같다. 공간 직시어들도 역시 독일어와 영어가 가깝다. 즉 영어의 공간 직시어 가운데 *at the front*를 제외하면 모두 게르만어 기원으로 확인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이 표현은 어휘의 결합구조이며 아직 완전한 문법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독일어에서는 '장소적인 앞'을 나타낼 때 장소 전치사와 같은 어원인 직시사(부사) *vorn*을 사용하는데 영어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표현 *before*가 주로 시간 개념으로 쓰이면서 장소 개념을 위해서는 프랑스어의 *front*를 빌려서 사용한 것이다. 즉 영어에서 *before*는 문법화 과정에서 시간 개념으로 특화되었고 시간 개념을 위해서는 (*at the*) *front*가 새로 쓰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 표현은 장차 *at front*와 같이 관사 생략 단계를 거쳐 하나의 단어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50) 공간 및 방법 직시어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hier	here	ici	vorn	ahead, at the front	devant
dort	there	là	unten	below	ci-dessous
da	there	là	rechts	right	droit
oben	above	ci-dessus	links	left	gauche
hinten	behind	derrière	so	so	si

(51) 영어 공간 직시어의 기원

above	게르만어 기원, (6) 참조
ahead	a-(OE <i>on</i>) + head(OE <i>hēafod</i> OHG <i>houbit</i>)
at the front	front(OE <i>front</i>)
behind	게르만어 기원, (6) 참조
below	게르만어 기원, (6) 참조
here	OE <i>hēr</i> OHG <i>hiar</i>
left	OE <i>lyft</i> ME <i>lift</i> , <i>left</i>
right	OE <i>riht</i> OHG <i>reht</i>
so	OE <i>swa</i> OHG <i>suo</i>
there	OE <i>þær</i> OHG <i>dār</i> NHG <i>da</i>

공간 직시어들의 구조 역시 시간 직시어와 비슷하게 독일어는 모두 단순구조이고 영어와 프랑스어에는 복합구조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즉 독일어에서는 이 직시어들이 모두 기본어휘로 되어 있고 영어와 프랑스어에는 파생어휘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자세한 분석

manu tenente, 'in the hand grip'), *bientôt* (< *bien* + *tôt*, 'good early'), *auparavant* (< *au* + *par* + *avant*, 'at before'), *immédiatement* (< *im* + *médiate* + *ment*, 'not indirectly').

결과는 (52-54)와 같다.

(52) 독일어 공간 직시어의 구조

단순구조: da, dort, hier, hinten, links, oben, rechts, so, unten, vorn (10개; 100%)

복합구조: 없음 (0개: 0%)

(53) 영어 공간 직시어의 구조

단순구조: above, ahead, at the front, behind, below (5개; 50%)

복합구조: here, left, right, so, there (5개; 50%)

(54) 프랑스어 공간 직시어의 구조

단순구조: droit, gauche, ici, là, si (5개; 55.5%)

복합구조: ci-dessous, ci-dessus, derrière, devant (4개; 44.5%)³⁸⁾

3.2.6. 양상 조동사(modal auxiliaries)

양상조동사는 형태·통사적으로 볼 때 게르만어에 나타난 특징적인 어류이며 로맨스어에는 없는 현상이다. 우선 세 언어에 나타난 그 대응표현들을 보면 (55)와 같다. 영어의 형태는 독일어 3인칭 단수현재형과 비슷하다.

(55) 독일어 양상조동사와 영어, 프랑스어 대응표현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기본형	3.단수현재		
können	kann	can	pouvoir
mögen	mag	may	
müssen	muss	must	devoir
sollen	soll	shall	
wollen	will	will	vouloir
dürfen	darf		

독일어의 동사 *dürfen*의 기본의미는 영어의 ‘허락’을 나타내는 *may*와 같으며 고대 영어에서는 사용되었으나 현대 영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Birkmann, 1987, p. 351f). 역사적으로 볼 때 위의 게르만어 양상조동사들은 형태면에서 이른바 과거-현재형 동사(Präterito-

38) 프랑스어 복합구조의 기원을 보면 다음과 같다: *ci-dessous* (< *ci* + *dessous*, ‘here under’), *ci-dessus* (< *ci* + *dessus*, ‘here over’), *derrière* (< *de* + *rétro*, ‘of back’), *devant* (< *de* + *avante*, ‘of front’).

Präsentia)라는 특수한 동사군을 형성한다(Birkmann, 1987, p. 2). 즉 이들은 원래 과거형이었던 형태를 현재형으로 쓰고 있고, 원래의 현재형은 없어졌으며, 이후 규칙동사의 형태에 맞추어 과거형이 다시 만들어졌다(Birkmann, 1987, p. 2; Kern & Kurt, 1977, p. 62).

영어와 독일어의 양상조동사는 형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통사적인 측면에서도 일반동사와 구별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송경안·김순임, 1988, p. 101f 참조). 반면 프랑스어의 양상조동사는 의미적으로 양상적 성격을 가질 뿐이며 다른 일반동사와 형태·통사적인 면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같은 글, p. 105f 참조).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해서 보면 기능어라고 할 수 있는 양상조동사의 기원은 영어와 독일어가 모두 같고 프랑스어는 이와는 완전히 다른 로맨스어적 기원을 갖는다고 하겠다.

4. 마무리

이상에서 우리는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기능어의 어휘구조를 비교분석하였다. 역사적으로 영어는 게르만어에서 출발해서 이후 프랑스어의 영향을 받았으며 현대 영어는 오히려 프랑스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어휘면에서 보면 영어는 게르만어의 기초어휘 위에 로맨스어의 어휘가 두껍게 상층부를 덮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 등은 대표적인 어휘적 범주인 동사를 대상으로 세 언어를 분석하여 이를 확인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세 언어의 기능어를 비교한 것이다.

기능어는 오랜 시간에 걸쳐 문법화된 기초어휘들로서 쉽게 바뀌거나 대체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해서 보면 영어의 기능어에 게르만어적인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분석결과는 이 예상과 일치하였다. 인칭대명사, 소유대명사, 의문사, 관사류, 부정대명사, 재귀사, 양상조동사는 모두 영어와 독일어가 같은 기원이었다. 영어의 시간직시어 9개, 공간 직시어 8개 가운데 각각 1개가 로맨스어 기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게르만어 기원이었다. 영어의 접속사 26개 가운데 *because, in case*가 부분적으로 로맨스어 기원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게르만어 기원이었다.

전치사는 양상이 조금 다르다. 즉 전치사는 다른 기능어들과 비교할 때 변화에 보다 수용적인데, 이는 기능어들의 기능성의 정도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능성이 높은 범주는 보수적이며 상대적으로 기능성이 낮은 범주는 수용적이라는 뜻이다. 이는 기능범주의 폐쇄성 및 개방성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기능범주들이 대개 폐쇄적인데 반해 전치사는 그 가운데서도 개방범주에 가까운 것이다. 전치사 가운데서도 가장 기초어휘라고 볼 수 있는 장소 표현 전치사(독일어 *여격/대격 전치사*)는 위의 다른 기능어들과 마찬가지로 보수적이다. 22개 영어 전치사 표현 가운데 1개만 로맨스어 기원이었다. 방향과, 출처를 주로 나타내는 독일어 *여격전치사*의 대응표현은 영어에 19개로 나타나는데, 이 가운데 12개(63%)만 게르만어 기원

이고 7개(37%)는 로만스어 기원이었다. 독일어 대격전치사의 영어 대응표현은 13개이며 이 가운데 10개(77%)가 기원이고 3개(23%)는 로만스어 기원이었다. 독일어 속격 전치사의 영어 대응표현은 7개인데 이 가운데 3개는 게르만어 기원, 3개는 로만스어 기원, 나머지 1개는 두 계열이 혼합된 것이다.

어휘구조 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독일어가 가장 보수적이고 프랑스어가 가장 변화가 심하며 영어는 그 사이에 끼어 있다.³⁹⁾ 즉 독일어는 오랜 시간에 걸쳐 문법화된 게르만어 단일구조 표현들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프랑스어는 라틴어에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많은 문법화가 일어나 비교적 늦게 발달한 복합구조 표현들이 많다. 역사적으로 이 두 언어의 영향을 받은 영어는 기능어의 구조에서도 이 두 언어의 특징이 혼합된 양상을 보인다. 문법범주별로 보면 전치사가 변화에 가장 수용적이었고 다음으로 접속사와 직시어가 약간의 유연성을 보였으며 대명사, 의문사, 관사류, 양상조동사는 가장 보수적인 경향을 보였다.

참고문헌

- 김 순. (2004). 독일어 영어 불어의 부치사 비교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순임. (작성 중). 독일어, 영어, 불어의 명사구조 비교연구.
 김인균. (2004). 한국어와 영어의 명사 형성 접미사 비교 및 대조. *이중언어학*, 24, 67-85.
 송경안. (2012). 청자-화자간 역동과 유럽언어 대명사의 변화. *언어학*, 20(2), 61-80.
 송경안·김순임. (1988). 독일어, 영어, 불어의 조동사 비교연구. *독일언어문학*, 9, 97-133.
 송경안·김순임. (2000). 독일어, 영어, 불어의 동사구조 비교연구. *독일언어문학*, 13, 1-19.
 이성하. (1998). *문법화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이익환·이민행. (2005). *심리동사의 의미론: 영어, 한국어와 독일어의 대조연구*. 서울: 역락.
 임혜순. (1995). 영어의 인칭대명사 변화. *언어학*, 17(1), 337-351.
 최규일. (2002). 한국어와 독일어의 말(어휘) 형성론 비교 연구(1). *한국어의미학*, 10, 1-72.
 최병진. (2010). 독일어-한국어 어휘의미망의 구축과 활용에 대한 연구. *독일언어문학*, 47, 41-63.
 홍재성. (2003). 불, 한 형용사 어휘 대조 연구 서설 - 관계형용사의 경우를 중심으로 - *인문논총*, 48, 27-54.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Baker, M. (2003). *Lexical categor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augh, A. & Cable, T. (2002). *A history of the English language*. 5th edition.

39) 문법화 및 문법구조의 보수성에 관해서 Wiemer (2011)는 전반적으로 슬라브어가 형태·통사적으로 보수적이라고 보았고 Bisang (2011b)은 이른바 EMSEA 언어들이 문법장치가 현저하게 부족한 언어라고 지적하였다(익명의 심사자 제공 자료).

- London: Routledge
- Birkmann, Th. (1987). *Präteritopäsentia*. Tübingen: Niemeyer.
- Bisang, W. (2011a). Word classes. In J.-J. Song (Ed.), *The Oxford handbook of linguistic typology* (pp. 280-30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isang, W. (2011b). Grammaticalization and linguistic typology. In H. Narrog & B. Heine (Eds.), *The Oxford handbook of grammaticalization* (pp. 105-117).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uscha, J. (1995). *Lexikon deutscher Konjunktionen*. Berlin: Langenscheidt.
- Butzkamm, W. (2002). *Psycholinguistik des Fremdsprachenunterrichts*. Tübingen: Francke.
- Dauzat, A., Dubois, J. & Mitterand, H. (1992). *Nouveau dictionnaire étymologique et historique*. Paris: Librairie Larousse.
- Duden. (1966). *Die Grammatik*. Duden Bd. 4. (2. Auflage) Mannheim: Duden Verlag.
- Duden. (2009). *Die Grammatik*. Duden Bd. 4. (8. Auflage) Mannheim: Duden Verlag.
- Erben, J. (1980). *Deutsche Grammatik. Ein Abriß*. 12. Aufl. München: Hueber
- Forstreuter, E. & Egerer-Möslein, K. (1980). *Die Präpositionen*. Leipzig: Verlag Enzyklopädie.
- Goursau, H. & Goursau, M. (1991). *Europäisches Wörterbuch*. München: Orbis.
- Greenbaum, S. & Quirk, R. (1990). *A Student's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Greenberg, J. (1991). The last stages of grammatical elements: contractive and desemanticization. In E. C. Traugott & B. Heine (Eds.),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Vol. 2.* (pp. 301-314). Amsterdam: John Benjamins.
- Günther, B. & Günther, H. (2007). *Erstsprache, Zweitsprache, Fremdsprache: Eine Einführung*. Weinheim/Basel: Beltz.
- Heine, B. (2003). Grammaticalization. In B. Josephn & R. Janda (Eds.), *The handbook of historical linguistics* (pp. 575-601). Oxford: Basil Blackwell.
- Heine, B., Claudi, U. & Hünnemeyer, F. (1991). From cognition to grammar: Evidence from African languages. In E. C. Traugott & B. Heine (Eds.),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Vol. 1.* (pp. 149-187). Amsterdam: John Benjamins.
- Helbig, G. & Buscha, J. (1984). *Deutsche Grammatik*. 8. Aufl. Leipzig: Verlag

Enzyklopädie.

- Helbig, G. & Buscha, J. (1996). *Deutsche Grammatik*. 17. Aufl. Berlin: Langenscheidt.
- Hoad, T. F. (1986). *The concise Oxford dictionary of English etym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offmann, L. (ed.) (2007). *Handbuch der deutschen Wortarten*. Berlin: Walter de Gruyter.
- Hughes, G. (2000). *A history of English words*. Oxford: Basil Blackwell.
- Kameyama, S. (2007). Persondeixis, Objektdeixis. In L. Hoffmann (Ed.), *Handbuch der deutschen Wortarten* (pp. 577-600). Berlin: Walter de Gruyter.
- Kern, P. & Kurt, H. (1977). *Geschichte der deutschen Flexionssysteme*. Tübingen: Niemeyer.
- Kluge, F. (1899/1989). *Etymologisches Wörterbuch der Deutschen Sprache*. Berlin: Walter de Gruyter.
- Körting, G. (1908). *Etymologisches Wörterbuch der Französischen Sprache*. Paderborn: Ferdinand Schöningh Verlag. (Google Internet Version, <http://books.google.com>).
- Kurylowicz, J. (1975). The evolution of grammatical categories. *Esquisses linguistiques II* (pp. 38-54). München: Wilhelm Fink Verlag.
- McKnight, G. H. (1923). *English words and their background*. New York/London: D. Appleton and Co.
- Neuner, G. (1996). Deutsch als zweite Fremdsprache nach Englisch. *Deutsch als Fremdsprache*, 4, 211-217.
- Neuner, G., Hufeisen, B., Kursisa, A., Marx, N., Koithan, U. & Erlenwein, S. (Eds.) (2009). *Deutsch als zweite Fremdsprache*. Stuttgart: Klett-Langenscheidt.
- Orbis. (1988). *Wörterbuch Französisch-Deutsch Deutsch-Französisch*. München: Orbis.
- Orbis. (1992). *Wörterbuch Englisch-Deutsch Deutsch-Englisch*. München: Orbis.
- Pisani, V. (1966). Entstehung von Einzelsprachen aus Sprachbünden. *Kratylos*, 11, 125-142.
- Ruoff, A. (1990). *Häufigkeitswörterbuch gesprochener Sprache*. Tübingen: Niemeyer.
- Sasse, H.-J. (1993). Syntactic categories and subcategories. In: J. Jacobs, A. v. Stechow, W. Sternefeld & T. Vennemann(eds.), *Syntax: An international handbook* (pp. 646-685). Berlin: Walter de Gruyter.
- Schachter, P. (1985/2007). Parts-of-speech system. In T. Shopen (Ed.), *Language*

-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I* (pp. 1-6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eler, M. (1977). *Der englische Wortschatz*. Berlin: Erich Schmidt.
- Schröder, J. (1986). *Lexikon deutscher Präpositionen*. Leipzig: Verlag Enzyklopädie.
- Schulz, D. & Griesbach, H. (1960). *Grammatik der deutschen Sprachen*. München: Hueber Verlag.
- Shipley, J. (1984). *The origins of English word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Wiemer, B. (2011). Grammaticalization in Slavic languages. In H. Narrog & B. Heine (Eds.), *The Oxford handbook of grammaticalization* (pp. 740-75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송경안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독문과

전화: 062-530-3176

이메일: kasong@chonnam.ac.kr

Received on December 15, 2014

Revised version received on March 4, 2015

Accepted on March 17, 2015